

ITU-T TSAG 국제회의 참가 결과

이민아 TTA 책임연구원



1. 머리말

ITU-T 전기통신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 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룬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전자회의로 개최된 이번 TSAG 회의에는 44개국 255여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11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COVID-19 인증서 기반 서비스 공동 조정 그룹(JCA-DCC) 신설 이슈,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 관련 결의 제개정 이슈, 연구반 구조 검토를 위한 Action Plan 개발 논의, ITU-T 작업방법 관련 권고인 A.1의 개정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디지털 COVID-19 인증서 기반 서비스 공동 조정 그룹(JCA-DCC) 신설

2021년 8월, ITU/WHO가 개최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COOV 기술 등이 소개되는 한편, ITU-T에서 관련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워크숍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COVID-19 인증서 기반 서비스 포커스 그룹(FG-DCC, Focus Group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 based services) 신설을 제안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특정 이슈에 대해 ITU-T 연구반의 활동을 돕고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 해당 기술 및 표준 사전연구 등을 하기 위해 신설되는 한시적 그룹이다. 결과물(deliverable)은 모(母)그룹에 제출되어, 권고 또는 기술보고서 등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해당 포커스 그룹 신설은 사전에 WHO와 긴밀히 협의해 지지를 받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ITU-T 내 관련 연구반 의장(SG17, SG20, SG16)들도 포커스 그룹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기본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제안되었다.

TSAG은 이 이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TSAG에서의 쟁점은 코로나로 인한 백신 패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성, 상호연동을 위한 신뢰 네트워크, 신원 바인딩 문제, 기존 기술과의 중복 가능성, 다른 표준화 기구의 작업과의 중복성 등이었다. WHO, 중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러시아,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중국 화웨이 등은 백신 접종 증명서의 국제 연동과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인증서 필요성,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신뢰 네트워크 구축, 신원 바인딩 등의 이슈, WHO를 통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백신 접종 증명서의 개발 등을 이유로 FG 신설을 지지하였다. FG를 통한 사전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지 이유였다. 다만 유럽연합은 이미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백신 접종 증명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신기술을 논의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 등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은 신속한 표준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연구반에서 바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FG보다는 JCA(Joint Coordination Activity) 신설 혹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플랫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JCA는 FG와 달리 ITU-T 연구반 및 관련 표준 개발 기구 등과 조정 및 협력 등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으로 ITU-T 멤버십 없이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FG와는 달리 멤버십이 개방되어있지 않다. 주로 연구반에서 관련 권고 아이템이 있어 조정이 필

요한 경우 신설한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증명 방식인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 등 유럽의 PKI 방식이 아닌 다른 신기술 연구도 필요하다는 점, 일반 연구반 회의는 연 1~2회이므로 표준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나 FG는 회의를 필요시마다 개최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술 연구 및 표준화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논의 결과, FG 신설 대안으로 JCA-DCC(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를 신설하고 의장은 염홍열 교수(순천향대)를 임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 영역은 인터림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TSB(사무국) 국장은 WHO 등과의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플랫폼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ITU-T 작업방법

ITU-T는 연구반 운영, 권고 승인 등을 위해 자체적인 작업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인 문서가 결의 1(ITU-T 작업절차)과 ITU-T 권고 A.1(ITU-T 작업방법)이다. A.1 권고는 TSAG에서 담당하는 권고 시리즈로 기고서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개정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결의 1은 WTSA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WTSA 개최일이 가까워지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2022년 3월 WTSA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금번 TSAG에 결의 1의 관련 기고가 제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결의 1에 권고 승인 절차 중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 회람 회신 집계 기준 문구 수정, 대표단(delegation) 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등을 제안하였다.

TAP 회람 회신 집계 기준 관련, 우리나라는

이전 TSAG 회의에서 TAP consultation 회람 문서에 응답한 회원국 중 기권 회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응답국 카운트 시 기권 회신을 제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제안하여 반영되게 한 바 있다. 금번 TSAG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 문구를 명확화하기 위해 수정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등은 이에 찬성하는 등 특별한 쟁점 이슈는 없었으나 ITU가 결의를 6개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특성상 영어 외 언어로 번역시에도 의미 변동이 없을지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표단(delegation) 정의 관련, 현재 결의 1에 ‘대표단’ 문구가 있으나 그 범위 및 정의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관련 ITU 헌장(Constitution)을 참조 문서로 포함하도록 결의 1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찬성해 반영되었다.

권고 A.1 관련, 우리나라는 진행 중인 이슈에 대한 논의 지속 등을 위해 매 회의마다 신규로 제출되는 기고서 없이도 라포처 그룹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여 A.1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다. 또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추후 라포처 및 에디터 매뉴얼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실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예시로 제시한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여 관련자들과 별도 협의를 추진 및 차기 인터림 회의에 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러시아가 제안한 IPR 확약서/선언 제출 안내 문구 수정 제안, 신규 권고 아이템 제안시 지지 멤버 수 조건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러시아는 A.1 등 A시리즈 권고 뿐 아니라, ITU의 IPR/트레이

드 마크 관련 정책 개정이 필요하며 어떻게, 누가 개발 및 승인하는 것인지 등에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외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상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현 정책으로는 특허, 트레이드마크가 포함된 ITU 권고 등의 문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논의 결과 TSB 국장의 IPR 애드혹 그룹에서 본 이슈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IPR 등의 정책 변경은 WTSA 결의 1(ITU-T 작업 절차)을 변경해야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필요시 러시아에서 WTSA-20에 결의 1 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신규 권고 아이템 제안 시 지지 멤버 수 조건 관련, 현재 A.1에는 신규 권고 아이터를 제안하는 서식이 있으며 항목 중 활발히 기고할 지지 멤버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멤버 숫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캐나다, 미국, 유럽지역 등은 숫자를 구체화하여(예, 4개국 이상 지지) 신규 아이터 채택 조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국가 수에 대한 규정보다는 2개 이상의 멤버(섹터 멤버 등)가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중국 차이나텔레콤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나 국가 구분이 어려운 글로벌 기업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ITU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지지국 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논의는 시간 부족 등으로 인터림 회의를 통해 추가 진행하기로 하였다.


2.3 ITU-T 연구반 구조조정

2020년부터 ITU-T 연구반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지난 2021년 1월 TSAG 회의에서 WTSA-20에서는 대규모 연구반 구조조

정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CG 그룹¹을 신설하여 연구반 구조조정 검토를 위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인터림 회의를 통해 미국/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이 관련 기고를 제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Action Plan 초안을 개발하였고, 금번 회의에서는 해당 초안 중 주요 이슈인 연구반 구조 분석 관련 메트릭, 해당 분석을 수행할 주체(외부 자문가 고용 혹은 ITU-T 멤버 자체 수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은 외부 자문가를 고용하여 객관적으로 ITU-T 구조를 분석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 중국, 가나 등은 외부 자문이 분석을 해도 최종 결정은 ITU-T 멤버들이 하는 것이며 해당 자문가도 특정 국가 소속일 것이므로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세부 메트릭 중 타 기구 표준과 ITU-T 표준 분석 항목 등에 이견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인터림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3. 맺음말

ITU-T는 기본적으로 ICT 관련 산업계 및 사실표준기구가 활성화된 미국, 영국, 유럽국가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중국, 중동, 러시아 등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기술 발전이 심화되고 융합되면서 더욱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별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급적 중립적 입장에서 표준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금번 TSAG에서 신설된 JCA-DCC 의장국으로서 백신 접종 증명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반, 표준개발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ITU/WHO와의 2차 워크숍도 추가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열리는 차기 TSAG 회의에서 논의되는 정책적 이슈가 WTSA-20까지 지속되므로,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WTSA-20 대응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¹ Correspondence Group: WTSA-24 준비를 위한 ITU-T 연구반 구조 분석 및 실행 계획(Action Plan) 수립을 목적으로하는 한시적 서신 그룹(의장: 영국)